

고려 태조 왕건의 기병 운영에 대한 검토

김명진*

1. 머리글
2. 군마(軍馬)의 수급형태
3. 기병(騎兵)의 실상
4. 기병(騎兵)의 실전상황
5. 맺음글

1. 머리글

통일고려(統一高麗)를 완성한 태조(太祖) 왕건(王建)은 전쟁수행 능력이 탁월하였는데, 그 주요 수단 중 하나가 우수한 기병(騎兵)의 운영이었다. 그는 877년(신라 헌강왕 3)에 태어나 스무 살 때(896, 신라진성여왕 10)부터 본격적으로 전쟁터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리고 898년(신라 효공왕 2)에 궁예(弓裔)가 왕건을 정기대감(精騎大監)으로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0183).

임명하였다.¹⁾ 왕건은 원래 기병 지휘관이었던 것이다.

왕건이 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 주요 상대는 견훤(甄萱)의 후백제(後百濟, 당시 명칭은 백제)였다. 따라서 전쟁사(戰爭史) 측면에서 이 시기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²⁾ 선행연구 성과에 힘입어 고려 통일전쟁에 대한 윤곽은 그려져 있는 셈이다. 그런데 왕건이 수행한 고려 통일전쟁의 주요 수단에 대해서는 풀어야 될 과제들이 남아있다. 최근 왕건의 질자운영(其人其人)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지만,³⁾ 기병 운영과 수군 운영 같은 전쟁의 직접적인 수단에 대한 천착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전쟁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그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왕건의 통일전쟁에서 큰 파괴력을 지녔던 기병 운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보려 한다. 먼저 그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군마(軍馬)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기병의 실상, 즉 기병이 어떤 종류로 존재했는지 분류작업을 하려한다. 끝으로 기병의 실전상황을 그려보면서 통일전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해하고자한다. 이 글의 시간적 공간은 주로 신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든 진성여왕대부터 왕건의 재위기간까지이다. 소략한 사료로 인한 연구의 제약은 관련 사료를 비교 검토하고 선행연구 성과를 참고하면 다소 극복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기병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당시 기병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을 답사

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2) 이 시기 전쟁을 왕건의 입장에서 서술한 연구 - 류영철, 『高麗와 後百濟의 爭覇過程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김명진, 『高麗 太祖 王建의 統一戰爭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궁예의 입장에서 서술한 연구 - 신성재,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견훤의 입장에서 서술한 연구 -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2008.

3)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質子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2013.

하여 실상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 글이 고려 통일전쟁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 군마(軍馬)의 수급형태

고려 태조 왕건은 일찍부터 말(馬)과 인연을 맺어 왔다. 먼저 『고려사』 고려세계(高麗世系)에 의하면, 풍수지리사상을 집대성한 도선(道詵)이 왕건의 부친인 세조(용건, 왕륜)에게 마두명당(馬頭明堂)자리를 점지해 주었다고 한다. 이에 세조는 말머리(馬頭)에 해당하는 명당자리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태어난(877년) 이가 왕건이라고 한다. 세조는 풍수도참설을 신봉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고려세계에서는 도선이 17세가 된 왕건에게 전쟁에 나가 진을 칠 때 유리한 지형과 적합한 시기를 선택하는 법 등등을 알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소 과장되어 있지만 왕건이 어릴 적부터 전쟁수행에 필요한 여러 전법을 공부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수행한 통일전쟁의 전장(戰場)은 크게 육지와 바다로 구분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육지와 바다가 모두 전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육지가 전장인 육전(陸戰)에서 큰 살상력을 가진 병력은 기병이었다. 당시 기병은 현대전의 탱크와 같은 육전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이었다. 기병은 말과 군인의 결합, 즉 군마(軍馬)⁴⁾와 전투 장비를 갖춘 병사로 결합되었다. 그리고 기병은 잘 훈련된 군마의 수급이 기본 필수 조건이었다.

4) 전쟁에 쓰이는 말은 전마(戰馬, 전투마)가 있고, 말의 범주에 나귀(驢)와 노새(騾)가 있었다(『고려사』 권82, 병지2, 마정). 전마뿐만 아니라 나귀와 노새도 전쟁 수행 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수송용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미로서 전마보다 군마(軍馬)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먼저 왕건이 수행한 통일전쟁기 고려군의 군마 수급형태는 어떠했을까 궁금하다. 물론 초기 고려군 군마는 궁예 정권의 군마 상당부분을 그대로 취하였을 것이다.⁵⁾ 그 이후 어떠한 과정 속에서 고려군은 군마를 취했을 것이지 살펴보자. 당시 군마의 수급은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자체조달·전쟁노획물·외부로부터 평화적으로 들여오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자체조달에 대해서 몇 가지 추적이 가능하다. 고려가 들어서기 이전에 신라에서는 진골부터 일부 일반 백성까지 심지어 여성까지도 말을 타는 경우가 있었다.

가) 4두품 여성부터 백성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안장은 자단·침향·황양목·해나무의 사용을 금하고, 또한 금·은·옥으로 장식하는 것도 금한다. 안장 언치와 안장 깔개는 수놓은 비단(계수금라 繫繡錦羅)·기늘고 성긴 비단(세라總羅)·무늬 비단(릉綾)·호피의 사용을 금한다. 말재갈(합銜)과 등자(등鐙)는 금·은·놋쇠의 사용을 금하고, 또한 금·은으로 장식하는 것도 금한다. 말다래(장니障泥)는 가죽만을 사용하며, 가슴걸이와 밀치는 수놓은 줄과 자색 분으로 아롱무늬를 넣은 끈의 사용을 금한다.⁶⁾

위의 사료에 의하면, 신라인들은 일반 백성의 여성까지도 말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특히 말재갈(합銜)·등자(등鐙)·말다래(장니障泥)에 대한 기술은 이 규제가 말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해준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말을 타지는 않았겠지만, 일정 수의 여성까지도 일상에서 말을 타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인 금성(경주)의 일부 여성들이 여기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를 통해 고려의 개국 초에도 말은 어느 정도 일상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민가의 말들이 유사시에는 군마로 전용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5) 원래 궁예의 기병 모태는 복원(강원도 원주)의 지역세력인 양길의 기병이었다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5년 동10월).

6) 『삼국사기』 권33, 잡지2, 거기, “四頭品女至百姓女 鞍橋禁紫檀沈香黃楊槐 又禁飾金銀玉 鞍鞞坐子禁繡錦羅總羅綾虎皮 銜鐙禁金銀鍍石 又禁飾金銀 障泥但用皮 鞞鞞禁組及紫粉量條”.

군마라 해서 모두 빠른 기동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송용 군마는 일상에서 길들여진 민가의 말들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유사시에 민가의 말 중에서 우량마(優良馬)는 전마(戰馬)로, 보통마(普通馬)는 수송용으로 징발한다면 군마 조달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말 사육 경험이 있는 민가에 군마를 위탁하는 방법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태조대에 궁궐에서 쓰는 말을 키우던 궁궐 마구간으로서 내구(內廄)와 외구(外廄)가 있었다.⁷⁾ 그런가하면 교통·통신 조직인 역(驛)에서도 어느 정도의 말을 사육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역이 공무를 위해 말을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통일전쟁시기에 군령(軍令) 전달과 군수(軍需) 보급에 역이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했었다.⁸⁾ 각각의 역이 제 역할을 수행함에 일정 수의 말을 보유하고 있었다. 936년(태조 19) 2월에 견훤의 사위 박영규가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 의사를 밝혔다. 같은 해 9월에 박영규가 귀부해오에 왕건은 그에게 역마(驛馬) 35필을 이용하여 집안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였다고 한다.⁹⁾ 이처럼 역에서는 일정 수의 말 관리 및 사육을 했던 것이다.

패강진(溟江鎭, 황해도 평산)은 신라 선덕왕 3년(782)에 설치된 군진인데,¹⁰⁾ 후에 궁예에 의해서 접수되었다.¹¹⁾ 그러다가 왕건이 궁예를

7)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시무계28조; 『고려사절요』 권2, 성종문의대왕, 임오 원년 6월, 최승로 시무28조.

8) 태조대는 통일 달성과 북방경계 강화를 위해 신속한 군령 전달과 군수 보급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교통 분야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높아졌다(한정훈,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2쪽). 여기에 당시 역의 역할이 있었다.

9) 『고려사』 권92, 열전5, 박영규.

10)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외관, 패강진전. 패강진은 황해도 평산으로 유추된다(전덕재, 『新羅 下代 溟江鎭의 設置와 그 性格』, 『大丘史學』 113, 대구사학회, 2013, 37쪽 참고).

11) 궁예가 패강진 일대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건녕(乾寧) 원년(894) 이후의 일이라고 추정된다(『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건녕 원년).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함에 이 지역은 왕건의 영역이 되었다. 패강진의 군관들은 그 명칭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데, 두상대감 1명·대감 7명·두상제감 1명·제감 1명·보감(步監) 1명·소감 6명 등이 있었다.¹²⁾ 이 중에서 보감은 1명뿐인데, 보감은 자의(字意)로 보아 보병 군관이라 하겠다. 그런데 신라의 병종(兵種)이 보병과 기병으로 분류되었음을 생각할 때, 패강진 군관들 명칭 중에서 보감이 특기되어 있으니 나머지 군관들은 대부분 기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¹³⁾ 하지만 이들 중에는 보급 같은 업무와 관련된 군관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하더라도 기병과 관련된 군관이 많았을 가능성은 있다 하겠다. 따라서 패강진에는 많은 수의 군마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군마들이 궁예에게 접수되고, 그 뒤에 왕건의 고려 군마가 되었던 것이다.

고려군 군마의 자체조달 중에서 많은 수는 목장에서 사육하여 조달하였다. 이는 『고려사』 병지 마정(馬政)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나) 여러 목장은 용양(龍驤)[황주(黃州)]·농서(隴西)[동주(洞州)]·은천(銀川)[백주(白州)]·양란(羊欄)[개성(開城)]·좌목(左牧)[정주(貞州)]·회인(懷仁)[청주(淸州)]·상자원(常慈院)[견주(見州)]·엽호현(葉戶峴)[광주(廣州)]·강음(江陰)·동주(東州)에 있다.¹⁴⁾

위와 같이 마정에 등장하는 말 목장은 수도 개경(개성)의 주변 또는 내륙지대였다. 그런데 여기에 섬 목장이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섬 목장이 태조대에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¹⁵⁾

12)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외관, 패강진전.

13) 이기동, 「新羅 下代の 涇江鎮 -高麗王朝의 成立과 關聯하여-」, 『韓國學報』 4, 일지사, 1976, 9~13쪽.

14) 『고려사』 권82, 병지2, 마정, “諸牧場 龍驤(黃州) 隴西(洞州) 銀川(白州) 羊欄(開城) 左牧(貞州) 懷仁(淸州) 常慈院(見州) 葉戶峴(廣州) 江陰 東州”.

15) 신라가 섬 목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건국 초에도 섬 목장이 다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신라의 섬 목장에 대해서는, 서영교, 「張保臯의 騎兵과 西南海岸

다) (932년 9월에) 견훤이 일길찬 상귀(相貴)를 시켜 수군을 거느리고 예성강으로 쳐들어와서 염주(鹽州)·백주(白州)·정주(貞州) 등 세 고을의 배 1백 척을 불사르고 제산도(猪山島, 저산도) 목장에 있는 말 3백 필을 가져갔다.¹⁶⁾

위의 내용에 의하면, 제산도(저산도, 황해남도 은천군 대항면 제도리猪島里)¹⁷⁾에 고려의 말 목장이 있었다한다. 후백제가 약탈해간 말의 수가 3백 필이라고 했으니 섬 목장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개경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밖의 섬에도 목장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¹⁸⁾ 이처럼 고려는 육지와 섬에서 말 목장을 운영하여 필요한 군마를 수급하였다. 다만 나주 서남해의 섬들에서는 후백제에게 약탈당할 수 있는 약점이 있었으므로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섬에서는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섬 목장을 운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섬은 그 자체가 마치 바다올타리로 둘러싸인 듯한 곳이고, 백사장이 있다면 말을 훈련시킬 수도 있었기

의 牧場, 『震檀學報』 94, 진단학회, 2002 참고. 고려 태조대 섬 목장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도영, 「高麗時代의 馬政」,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 효성조명기박사화갑기념불교사학논총간행위원회, 1965, 15쪽;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293쪽 주1196 참고.

1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5년 9월, “甄萱遣一吉粲相貴 以舟師入侵禮成江 焚塩白貞三州船一百艘 取猪山島牧馬三百匹而歸”.

17) 저산도는 황해도 지도이고, 간척되어 육지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2, 황해도, 안악군, 산천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 1, 세가1』, 경인문화사, 2008, 150쪽 주4 ; 장동익, 『고려사세가초기 편보유』 1, 경인문화사, 2014, 290쪽 참고.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는 대동강하류에 있는 이곳을 돼지처럼 생긴 섬에 위치했다하여 제도리(猪島里, 원래는 제도동)로 표기하고 있다(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9황해남도②, 평화문제연구소, 2006, 326~327쪽·360쪽). 그런가하면 남한에서 돼지고기 요리인 진육(猪肉)볶음을 재육볶음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저산도와 지도는 원래 제산도와 제도로 불리어졌다고 추정된다.

18) 후백제 견훤이 왕건에게 절영도(絶影島, 부산 영도)의 좋은 말 한 필을 선물로 보낸 적이 있는데(『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7년 8월), 이를 통해서 후백제도 섬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섬에서 말을 기르는 것은 보편적인 사육방법이었다.

때문에 말 목장 경영에 최적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전쟁노획물로서의 군마수급이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자의 군사물자는 승자의 것이었는데 사람과 군마는 최고의 노획물이었다. 사람은 회유해서 군사로 쓰거나 노비로 부릴 수 있었다. 군마는 그대로 승자의 군마로 전용할 수 있었다. 사료 다)에서 견훤의 행동은 군마를 노획물로 가져간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대로부터 군마를 가져오면 아군의 기병 전력은 보강되지만 그만큼 상대의 기병 군사력은 약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1필의 군마 노획물은 그 효과가 2필이 되는 셈이다. 왕건도 견훤처럼 군마를 노획물로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 (921년 2월에) 달고적 171명이 신라를 침공하려고, 가는 도중에 등주(登州, 강원도 안변)를 통과하였다. 장군 견권(堅權)이 이를 가로막아 크게 격파하여 말 한 필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태조가) 명령하여 공로 있는 자들에게 곡식 50석씩 주게 하였다. 신라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사절을 보내 사의를 표하였다.¹⁹⁾

위의 전투 내용은 921년 2월에 발발한 등주전투(강원도 안변)에 관한 것이다. 장군 견권이 말갈계통인 달고적을 섬멸하였다. 달고적 171명은 모두 기병으로 추정되는데 고려군에 의해 전멸되었다. 이 전투가 끝난 후에 북쪽으로 말이 단 한 필도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 말을 고려군이 다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 말은 전투과정에서 죽기도 했겠지만 일부는 고려가 전쟁노획물로 취했으리라 여겨진다.

고려의 군마 수급 방법의 그 세 번째는 외부로부터 평화적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입·선물·수입·차용(借用) 등의 형태가 있었다. 고려의 북쪽에 있었던 발해는 잘 알려져 있듯이 926년에 멸망했는데, 그 전후로 고려에 많은 발해인들이 유입되었다. 대표적인

1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4년 춘2월, “達姑狄百七十一人侵新羅 道由登州 將軍堅權邀擊大敗之 匹馬無還者 命賜有功者 穀人五十石 新羅王聞之 喜遣使來謝”.

예를 들면, 934년(태조 17) 7월에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유민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에 내투(來投)하였다.²⁰⁾ 또한 말갈 계통인 제번(諸蕃)도 고려로 내투하였다.²¹⁾ 이때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유입인구와 더불어 그들의 말들이 고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의 북방에서 온 이들은 말과 친연성이 높은 부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은 당시 최고의 선물이었다. 다음은 그 명확한 사례들이다.

마)-① (918년 가을 7월) 청주(靑州)의 영군장군(領軍將軍) 견금(堅金)과 부장(副將) 연익(連翬)·흥현(興鉉)이 와서 뵈자, (고려 태조 왕건이) 각기 말한 필씩을 내려 주고 능백을 차등 있게 주었다.²²⁾

마)-② (924년 가을 8월) 견훤이 사절을 보내와 절영도(絶影島, 부산 영도)의 총마 한필을 (왕건에게) 바쳤다.²³⁾

마)-③ (926년 여름 4월) 견훤이 절영도의 명마(名馬)가 (고려에) 이르면 (후)백제가 망하리라는 도참설을 듣고서 이때서야 후회하며 사람을 시켜 그 말을 돌려 달라고 청하니 왕(왕건)이 웃으며 허락했다.²⁴⁾

마)-④ (931년 가을 8월, 왕건이) 보윤(甫尹) 선규(善規) 등을 보내어 신라 왕에게 안장을 갖춘 말과 능라와 채색 비단을 선사하고, ……²⁵⁾

마)-⑤ (932년, 공직에게) …… 태조(왕건)가 기뻐하여 대상에 임명했으며, 백성군을 녹읍으로 주고 (궁중) 마구간 말 3필과 채색 비단을 주었다.²⁶⁾

20)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7년 추7월.

21) 제번의 고려 내투에 대한 몇 사례를 간단히 찾아보면, 921년 2월의 흑수(黑水) 추장 고자라(高子羅)가 데리고 내투한 170명, 같은 해 4월의 흑수 아어한(阿於間)이 데리고 내투한 200명 등이 있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4년 2월과 4월). 당시 제번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156~171쪽 참고.

22)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무인 원년 추7월, “靑州領軍將軍 堅金 副將 連翬 興鉉 來見 各賜馬一匹 綾帛有差”.

2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7년 8월, “甄萱遣使 來獻絶影島驄馬一匹”.

2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9년 하4월, “萱聞讖云 絶影名馬至 百濟亡 至是悔之 使人請還其馬 王笑而許之”.

2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4년 추8월 계축, “遣甫尹善規等 遺羅王鞍馬綾羅綵錦 ……”.

26) 『고려사』 권92, 열전5, 공직, “太祖十五年 …… 太祖喜 拜大相 賜白城郡祿 廐馬三

마)-⑥ (935년 여름 6월, 왕건은) 견훤이 도착하자 다시 칭호를 상보(尙父)라 하고 …… 아울러 …… (궁중) 마구간 말 10필을 주었으며, ……²⁷⁾
 마)-⑦ (939년, 왕건이 최승로에게) …… 안장을 갖춘 말과 예식(例食) 20석을 주었다.²⁸⁾

이상에서처럼 당시 말이 선물로 사용되는 예가 많았다. 주로 국왕이 타국 왕이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역세력 및 총애하는 신하에게 말 선물을 하였다. 견훤도 마)-②처럼 924년에 왕건에게 말 선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서 918년에 오월국(吳越國)에 말을 진상한 적이 있었다.²⁹⁾ 심지어 마)-③에 의하면, 명마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도참설까지 있었으니 당대에 말의 가치는 대단하였다. 따라서 말은 당대 최고의 선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922년(태조 5) 봄 2월에 거란에서 고려로 낙타 선물을 보내왔다.³⁰⁾ 942년(태조 25) 겨울 10월에도 거란이 낙타 50필을 고려에 선물로 보내왔다.³¹⁾ 낙타는 말의 대용내지는 그 이상의 효용가치가 있는 동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건대 고려에 말이 여러 경로에서 선물로 들어왔을 가능성은 높다하겠다.

다음은 고려의 말 수입 여부이다. 태조 왕건대에 말을 수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그의 아들인 정종대에는 말을 수입했던 장면이 포착된다.

匹 彩帛”.

2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하6월, “及至復稱萱爲尙父 …… 兼賜 …… 廐馬十四 ……”.

28) 『고려사절요』 권2, 성종문의대왕, 기축 8년 5월, “…… 賜鞍馬例食二十碩”.

29)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정명 4년.

3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5년 춘2월.

3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25년 동10월.

바) (948년 가을 9월에) 동여진(東女眞)의 대광 소무개(蘇無蓋) 등이 와서 말 7백 필과 토산물을 바쳤다. 왕(정종)이 천덕전(天德殿)에 나와서 말을 검열하고 3등으로 구분하여 그 값을 평정하였는데 1등 말은 은주전자 1개·무늬 비단과 무늬 없는 비단 각 1필이요, 2등은 은바리때 1개·무늬 비단과 무늬 없는 비단 각 1필이요, 3등은 무늬 비단과 무늬 없는 비단 각 1필이었다.³²⁾

위의 내용은 정종 3년인 948년 9월의 일이었다. 언뜻 보면 말갈의 후예인 동여진에서 말과 토산물을 고려 조정에 선물로 바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정종이 말의 값을 헤아리는 모습에서 이는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말 수입의 실무를 고려왕이 직접 챙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말값은 은과 비단으로 계산하였다. 이때가 불과 태조 왕건 사후 5년 뒤에 있었던 일이므로 왕건대에도 외부로부터 말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기병이 강세인 말갈·여진의 말이기에 동여진으로부터 수입한 말은 대부분 군마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종이 말을 3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고려군 군마는 3등급 분류가 일반적이었으리라 짐작된다.

다음은 말 차용, 즉 말을 빌린 경우가 있었던가이다.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 전투인 936년(태조 19) 9월의 일리천전투에 참전한 흑수(黑水)·달고(達姑)·철륵(鐵勒)의 제번경기(諸蕃勁騎) 9,500명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³³⁾ 제번경기란, 말갈계통의 군세고 강한 기병들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태조 왕건이 여진의 말 1만 필을 빌려서(후)백제를 평정하였다는 기사가 참고된다.³⁴⁾ 이 기사에서 빌린 말

32)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3년 추9월, “東女眞大匡蘇無蓋等來 獻馬七百匹及方物 王御天德殿 閱馬爲三等 評定其價 馬一等 銀注子一事 錦絹各一匹 二等 銀鉢一事 錦絹各一匹 三等 錦絹各一匹”.

33)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34) 程大昌, 『演繁露』續集1, 「高麗境望」, “(章)僚之使也 會女眞獻馬於麗 其人僅百餘輩 在市商物 價不相中 輒引弓擬人 人莫敢向則 其强悍有素 麗不能誰何矣 麗主王建 嘗資其馬萬疋 以平百濟”. 이 자료는 959년(南唐 李璟 때, 高麗 光宗 10) 고

1만 필이라는 것은 제번정기 9,500명을 말하는 것이다. 왕건은 나름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로 제번정기 9,500명을 빌려서 일리천전투 승리의 한 동인(動因)으로 삼았었다.³⁵⁾ 이는 명확한 말 차용의 사례였다.

그리고 말을 이동시킬 때는 육로와 해로가 이용되었다. 육로의 이동은 당연한 것이고, 해로의 이동은 말을 배에 싣고 다녔다. 상황에 따라 많은 말 또는 기병을 이동시킬 수 있는 대형 선박도 있었다. 왕건이 궁예의 장수로 있던 시기에 나주를 갈 때, 배 1백여 척을 건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배 10여 척은 말이 달릴 만하였다(치마馳馬)는 내용이 있다³⁶⁾

당시 고려군 군마의 전체적인 관리는 비룡성(飛龍省) 또는 태복시(太僕寺)와 군사기구인 순군부·병부, 그리고 각 군(軍) 등에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⁷⁾ 태봉 때에 말 관리 관청으로 비룡성이 있었는데 『삼국사기』 궁예전에 의하면, 이 비룡성이 지금의 천복시(天僕寺)라 하였다.³⁸⁾ 천복시는 태복시(太僕寺/大僕寺)의 오기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비룡성이 그대로 왕건의 고려 정부로 이어졌을 것인데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는지 다른 명칭을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려에 사신으로 파견된 南唐의 如京使 章僚(?-?)가 지은 고려 견문기인 『海外使程廣記』의 일부분을 程大昌(1123~1195)이 인용한 것이다(장동익,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출판부, 2000, 80~82쪽). 한편 이를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간단히 여진에서 말 1만 필을 수입했다고 언급한 견해들도 있었다(今西龍 遺著, 『朝鮮史の槩』, 京城 近澤書店, 1935, 139쪽; 이용범, 「麗丹貿易考」, 『東國史學』 3, 동국사학회, 1955, 27쪽; 김광수, 「高麗建國期の 溟西豪族과 對女眞關係」, 『史叢』 21·22합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1977, 146쪽). 그러나 程大昌이 인용한 내용에 의하면, 여진의 말 1만 필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164~165쪽).

35) 일리천전투에 대해서는, 김명진, 「太祖王建의 一利川戰鬪와 諸蕃勁騎」, 『한국중세사연구』 25, 한국중세사학회, 2008 참고.

3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37) 고려의 말 관리 중앙조직에 대해서는, 남도영, 앞의 「高麗時代의 馬政」, 1965, 382~391쪽 참고.

38)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현종대인 1028년(현종 19)에 태복경(太僕卿)이라는 관직이 보이고,³⁹⁾ 『고려사』백관지에는 문종대에 태복시(태복시)가 보인다.⁴⁰⁾ 이는 태조에서 현종 사이의 어느 때에 비룡성이 태복시로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비룡성(태복시)과 각 목장에는 감시임무를 맡던 군사인 간수군(看守軍)이 배치되었으며 그 책임자는 장교(將校)였다.⁴¹⁾ 비룡성(태복시)의 태조대 책임자 직책은 알 수 없지만, 문종대에는 정3품 판사(判事)가 있었다.⁴²⁾ 각 목장의 책임자로는 목감(牧監)이 있었을 것이다.⁴³⁾

요컨대 통일전쟁기에 고려군의 군마 수급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었다. 자체조달(민가에서 조달, 내구(內廩)와 외구(外廩)에서 사육, 역(驛)·진(鎭)에서 조달, 말 목장 경영), 전쟁노획물, 외부로부터 평화적으로 들여오는 방법(발해인과 제번 등의 귀부로 인한 유입, 선물, 수입, 차용) 등이 그것이다.⁴⁴⁾ 특히 지리적으로 말 유입에 편리한 북방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려는 기병을 키우기에 유리한

39)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문대왕, 무진 19년 11월.

40) 『고려사』 권76, 지30, 백관1, 사복시.

41) 『고려사』 권83, 지37, 병3, 간수군 ; 남도영, 앞의 「高麗時代の 馬政」, 1965, 391쪽.

42) 『고려사』 권76, 지30, 백관1, 사복시.

43) 『고려사』 권83, 지37, 병3, 간수군 ; 남도영, 앞의 「高麗時代の 馬政」, 1965, 391쪽.

44) 한편, 고려 군마와 관련해서 승려들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찾아진다. 다음 내용을 보자. “마점사(馬占寺), 모두 왕자산(王字山)에 있다. 고려 태조(왕건)가 말을 머물게 했으므로 이름을 마점이라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천안군, 불우 - 馬占寺 俱在王字山 高麗太祖駐馬因名馬占)”. 왕건이 새로운 충청지역의 거점으로 천안부(天安府, 천안도독부, 충남 천안)를 설치했던 때가 930년 8월이었다. 이때 왕건은 천안의 진산(鎭山)인 왕자산(태조산)에 올라 주변을 살피고 동·서도솔(東·西兜率)을 합하여 천안부를 설치하였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3년 8월 ;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천안부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천안군, 건치연혁·형승·산천). 마점사는 그 왕자산에 있었으므로, 왕건이 마점사에서 머물렀을 때는 아마도 930년 8월 이후의 어느 때라고 여겨진다. 이는 왕건이 수행한 통일전쟁에서 불교계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특히 말과 관련된 것이기에 주목된다. 고려 군마(軍馬)의 보살핌에 승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천안부 설치 배경 검토」, 『천안향토연구』 2, 천안시서북구문화원, 2015, 140~141쪽). 하지만 사찰에서 군마 조달에 일조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후백제는 말의 외부 유입이 어려웠으므로 기병 육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후백제가 929년 무렵부터 보병 정예부대인 갑사부대(甲士部隊)를 중시한 것도 바로 말 수급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한다.⁴⁵⁾ 갑사부대에 대해서는 4장에서 기술하려한다. 통일전쟁의 막바지에 양국의 주력부대가 말 수급 상황 때문에 그 성격이 달랐던 것이다.

고려 통일전쟁기에 고려군 군마의 총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3장에서 제시하겠지만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 전투이면서 총력전이었던 936년(태조 19) 9월의 일리천전투⁴⁶⁾ 자료를 통해서 가늠할 수는 있다. 이때 동원된 고려군의 말을 탄 군사수는 외래 병사인 제번경기(諸蕃勁騎)를 제외하고, 마군(馬軍) 4만 명과 기병(騎兵) 3백 명이었다. 여기에 개경(개성)과 서경(평양)·천안부(천안도독부, 충남 천안)⁴⁷⁾ 등 주요 거점에 군마를 가지고 있는 예비 병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경우까지도 상정할 수 있다. 이상은 전마(戰馬, 전투마)였다. 또한 여러 곳의 말 목장에 있는 번식용 종마(種馬)와 잡다한 군사 업무에 동원할 수 있는 나귀·노새까지도 생각한다면 당시 고려군 군마의 총수는 대략 5만 필 이내가 아닐까한다.

3. 기병(騎兵)의 실상

고려 통일전쟁기 고려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육군

45) 견훤이 천성 4년(929)의 의성부전투와 청태 원년(934)의 운주전투에서 보병인 갑사부대(갑병甲兵, 갑사甲士)를 동원한 내용이 확인된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견훤의 갑사부대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軍史』 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200~201쪽 참고.

46)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47) 일리천전투의 준비작업을 했던 곳이 천안부였다.

은 다시 보병과 기병으로 나뉘어 있었다. 기병은 보병과 짝을 이루는 육군의 가장 기본적인 병종(兵種)이었다. 태조대 기병은 그 시기가 전쟁이었던 만큼 다양하게 조직되고 운영되었다. 왕건이 개국할 적에 기병은 그의 군사기반이었다. 898년(신라 효공왕 2)에 궁예(弓裔)가 왕건을 정기대감(精騎大監)으로 임명하였다.⁴⁸⁾ 왕건의 군 출발은 기병 지휘관이었던 것이다. 궁예정권 하에서 기병 지휘관인 왕건의 활약상이 명확히 드러났던 전투는 상주사화진전투(경북 상주)였다. 906년에 궁예는 왕건으로 하여금 정기장군(精騎將軍) 금식(黔式) 등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게 하여 상주 사화진으로 출정시켰다. 이 전투에서 왕건은 견훤과 여러 번 싸워 이겼다.⁴⁹⁾

이후 시간이 흘러 궁예가 실정(失政)을 하자, 왕건은 그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왕건이 거사할 적에 그를 추대한 개국 일등공신 4인방도 모두 기병장군(騎兵將軍)들이었다. 이들은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을 말한다. 918년 6월 을묘일 밤에 이들 기병장군들이 주동이 되어 궁예를 몰아냈다. 그 다음날인 병진일에 왕건은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였다.⁵⁰⁾ 왕건은 그 자신이 기병 지휘관이었으며 그를 추대한 것도 기병 지휘관이었으니 고려 건국과정에 기병의 위상이 어떠한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고려 통일전쟁기의 기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는데 제일 상위에 마군(馬軍)이 있었다. 그런데 마군은 어떠한 기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의문스러운 병력이었다. 그 실태를 알려주는 사료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마군은 가장 질(質)이 우수하고 전투장비(戰鬪裝備)를 많이 필요로 했던 기병이 아닐까한다. 그 이유는 제일 상위에 있었기 때문이다.⁵¹⁾ 개국 4인방과 견줘지는 인물이 유금필인데 그는 왕건을 섬겨

4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4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5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원년 하6월.

51) 이기백, 「高麗 軍人考」,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1968, 90쪽 참고.

마군장군(馬軍將軍)이 되었다.⁵²⁾ 유금필의 사례를 보아도 마군은 기병 중에서 상위에 속한다 하겠다. 아마도 개국 4인방도 마군장군이었다고 생각된다.

마군의 실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른 기병들의 실상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936년(태조 19) 9월에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격돌한 통일전쟁의 마지막 전투인 일리천전투(경북 구미)에 대한 사료이다.

사) 왕(왕건)이 삼군을 거느리고 천안부(충남 천안)에 이르러서 병력을 합쳐 일선군(경북 구미)으로 나아가니 신검이 병력으로써 이에 대항하였다. 갑오일에 일리천을 사이에 두고 (양군이) 진을 쳤다. 왕은 견훤(甄萱)과 함께 군사를 사열하였다.

(왕이) 견훤을 비롯하여 대상 견권·술희·황보금산, 원운 강유영 등은 마군(馬軍) 1만을 거느리게 하고 지천군 대장군 원운 능달·기연·한순명·혼악, 정조 영직·광세 등은 보군(步軍) 1만을 거느리게 하여 좌강(左綱)을 삼았으며, 대상 김철·홍유·박수경, 원보 연주, 원운 횡량 등은 마군 1만을 거느리게 하고 보천군 대장군 원운 삼순·준량, 정조 영유·길강충·혼계 등은 보군 1만을 거느리게 하여 우강(右綱)을 삼았으며, 명주 대광 왕순식, 대상 궁준·왕렴·왕예, 원보 인일 등은 마군 2만을 거느리게 하고 대상 유금필, 원운 관무·관현 등은 흑수(黑水)·달고(達姑)·철록(鐵勒) 등 제번경기(諸蕃勁騎) 9천 5백을 거느리게 하고 우천군 대장군 원운 정순·정조 애진 등은 보군 1천을 거느리게 하고 천무군 대장군 원운 종희·정조 견훤(見萱) 등은 보군 1천을 거느리게 하고 간천군 대장군 김극중·원보 조간 등은 보군 1천을 거느리게 하여 중군(中軍)으로 삼았다. 대장군 대상 공훤·원운 능필, 장군 왕함운 등은 기병(騎兵) 3백과 여러 성들에서 온 군사 1만 4천 7백을 따로 떼어서(예父) 거느리게 하여 삼군의 원병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하여) 북을 울리면서 전진하였다. (이때에) 갑자기 창검 형상으로 된 흰 구름이 우리 군사가 있는 상공에서 일어나 적진 쪽으로 떠갔다. (후) 백제 좌장군 효봉·덕술·애술·명길 등 4명이 (고려의) 병세가 굉장한 것을 보더니 투구를 벗고 창을 던져 버린 다음 견훤이 타고 있는 말 앞에 와서

52)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항복하였다. 이에 적병의 사기가 상실되어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왕이 효봉 등을 위로하고 신검의 있는 곳을 물었다. 효봉 등이 말하기를, “(신검이) 중군에 있으니 좌우로 들이치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대장군 공훤에게 명령하여 (후백제) 중군을 곧추 (찌르듯이) 치게 하고는 삼군이 일제히 나가면서 맹렬하게 공격하니 적병이 크게 패하였다. (그리하여 후백제) 장군 혼강·견달·은술·금식·우봉 등을 비롯하여 3천 2백 명을 사로잡고 5천 7백 명의 목을 베었다. 적들은 창끝을 돌려 저희들끼리 서로 공격하였다. 우리 군사가 (적을) 추격하여 황산군(黃山郡)까지 이르렀다가 탄령(炭嶺)을 넘어 마성(馬城)에 주둔하였다. 신검이 자기 아우들인 청주(靑州, 경남 진주) 성주 양검, 광주 성주 용검과 문무관료(文武官僚)들을 데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 이에 견훤은 근심과 번민으로 악창이 나서 수일 만에 황산(黃山) 절간에서 죽었다.⁵³⁾

위의 사료에는 고려 기병의 여러 실상과 후백제 패망의 마지막 순간이 잘 그려져 있다. <표 1>을 중심으로 고려 기병의 실상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53)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王率三軍 至天安府合兵 進次一善郡 神劍以兵逆之 甲午 隔一利川而陣 王與甄萱觀兵 以萱及大相堅權 述希 皇甫金山 元尹康柔英等 領馬軍一萬 支天軍大將軍元尹能達 奇言 韓順明 昕岳 正朝英直 廣世等 領步軍一萬 爲左綱 大相金鐵 洪儒 朴守卿 元甫連珠 元尹萱良等 領馬軍一萬 補天軍大將軍元尹三順 俊良 正朝英儒 吉康忠 昕繼等 領步軍一萬 爲右綱 溟州大匡王順式 大相兢俊 王廉 王父 元甫仁一等 領馬軍二萬 大相庾黔弼 元尹官茂 官憲等 領黑水 達姑 鐵勒 諸蕃勁騎九千五百 祐天軍大將軍元尹貞順 正朝哀珍等 領步軍一千 天武軍大將軍元尹宗熙 正朝見萱等 領步軍一千 杆天軍大將軍金克宗 元甫助杆等 領步軍一千 爲中軍 父以大將軍大相公萱 元尹能弼 將軍王含允等 領騎兵三百諸城軍一萬四千七百 爲三軍援兵 鼓行而前 忽有白雲狀如劍戟 起我師上 向賊陣行 百濟左將軍孝奉 德述 哀述 明吉等四人 見兵勢大盛 免胄投戈 降于甄萱馬前 於是賊兵喪氣 不敢動 王勞孝奉等 問神劍所在 孝奉等曰 在中軍 左右夾擊破之必矣 王命大將軍公萱 直擣中軍 三軍齊進奮擊 賊兵大潰 虜將軍听康 見達 殷述 今式 又奉等三千二百人 斬五千七百餘級 賊倒戈相攻 我師追至黃山郡 踰炭嶺 駐營馬城 神劍與其弟靑州城主良劍 光州城主龍劍 及文武官僚 來降 …… 於是甄萱憂懣發疽 數日卒于黃山佛舍”.

〈표 1〉 일리천전투에 참가한 고려군의 편제⁵⁴⁾

부대분류		지휘관		구성병력	비고		
		이름	관계				
3군	좌강	상급지휘	견훤(甄萱)		마군 1만		
			견권	대상(4품)			
			술희	대상			
			황보금산	대상			
		하급지휘	강유영	원윤(6품)	보군 1만		
			능달	원윤			
			기언	원윤			
			한승명	원윤			
	우강	상급지휘	흔악	원윤	마군 1만	지천군 대장군 支天軍 大將軍	
			영직	정조(7품)			
			광세	정조			
			김철	대상			
		하급지휘	홍유	대상	보군 1만		
			박수경	대상			
			연주	원보(4품)			
			현량	원윤			
	중군	상급지휘	상수	원윤	마군 2만	보천군 대장군 補天軍 大將軍	
			존량	원윤			
			영유	정조			
			길강총	정조			
			흔계	정조			
			왕순식	대광(2품)			
			공준	대상			
			왕렴	대상			
왕예		대상					
하급지휘		인일	원보	흑수·달고·철록 등 제번경기 9천 5백			
		유금필	대상				
		관무	원윤				
		관현	원윤				
		정순	원윤		보군 1천		우천군 대장군 祐天軍 大將軍
		애진	정조		보군 1천		천무군 대장군 天武軍 大將軍
		종희	원윤		보군 1천		간천군 대장군 杆天軍 大將軍
	견훤(眞萱)	정조	보군 1천				
원병	김극중	원보	기병 3백, 여러 성들에서 온 군사 1만 4천 7백	공휜·능필(대장군), 왕함윤(장군)			
	조간	원보					
	공휜	대상					
	능필	원윤					
	왕함윤						

총수 : 87,500명

54) 사료 사)를 기본으로 하고, 류영철, 「一利川戰鬪와 高麗의 통일」,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211~212쪽의 <표 13>과 김갑동,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0, 178쪽 <표 1>참고.

〈표 1〉을 보면, 고려군은 크게 3개의 부대와 원병으로 나뉘어져 있다. 좌강·우강·중군의 3군(三軍)과 원병(援兵)이 그것이다. 대체로 이들 부대에는 마군과 보군이 적절히 섞여 있었다. 왕건을 제외한 지휘관으로는 견훤을 포함하여 38명의 이름이 보인다. 4개 부대의 병력 수는 마군(馬軍) 4만 명, 보군(步軍) 2만 3천 명, 군세고 날랜 기병인 경기(勁騎) 9천 5백, 그리고 기병(騎兵) 3백을 포함한 원병(援兵) 1만 5천 명이였다. 총수는 8만 7천 5백에 이르고 있다. 왕건의 통일전쟁기에 가장 많은 수의 군사가 동원되었던 것이다.⁵⁵⁾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숫자는 마군 4만 명이였다. 고려군의 총력전에서 마군의 비중이 제일 높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원병에는 기병 3백 명이 있었는데, 그 지휘관은 대장군 공훤이였다. 『삼국사기』에는 그가 선봉이였다고 한다.⁵⁶⁾ 마군이 있는데 선봉은 원병인 공훤의 부대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료 사)에서 “대장군 대상 공훤·원운 능필, 장군 왕함운 등은 기병 3백과 여러 성들에서 온 군사 1만 4천 7백을 따로 떼어서 거느리게 하여 삼군의 원병으로 삼았다”⁵⁷⁾는 내용이 특별하다. 왕건은 이들을 따로 떼어서(예父) 원병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기병 3백은 선제 타격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때의 기병 3백은 최고 날래고 용감한 기병인 정기(精騎)였을 것이다.

그리고 흑수(黑水)·달고(達姑)·철륵(鐵勒) 등 말갈계통의 지원군은 제번경기(諸蕃勁騎)로 표현되고 있었다. 북방에서 온 외래 병사 제번 경기의 숫자가 9천 5백 명이였으니 당시 실정에 비추어 매우 많은 인원이 참전하였다. 경기(勁騎)는 그 자의(字意)가 알려주듯이 군세고 날랜 공격력을 가진 최정예 기병이였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기술할

55)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2014, 201~205쪽.

56)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천복 원년 추9월.

57) “父以大將軍大相公萱 元尹能弼 將軍王舍允等 領騎兵三百諸城軍一萬四千七百 爲三軍援兵”

제2차 운주전투에서도 고려군의 경기를 찾아 볼 수 있다.

대체로 당시 기병의 종류는 마군(馬軍)·정기(精騎)·경기(勁騎), 그리고 이 외에 일반기병⁵⁸⁾ 등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료(사)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이들 간의 엄격한 구별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각 전투에 따라서 마군 또는 일반기병 등으로 그 역할을 맡겼을 것이다.

4. 기병(騎兵)의 실전상황

고려군의 기병이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몇 있다. 먼저 2장의 사료(라)와 『삼국사기』의 관련 내용⁵⁹⁾을 합하여 살펴보면, 고려 태조 4년(921) 봄 2월에 말갈의 달고적 171명이 신라를 침범하였다. 이들이 등주(강원도 안변)를 지나는데 삭주(강원도 춘천)를 지키고 있던 고려 장수 견권이 기병을 거느리고 쳐서 크게 깨뜨렸다. 기병인 달고적은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고 전멸하였다한다. 고려군 기병의 위력을 잘 보여준 사례 중의 하나가 등주전투의 기병전이었다. 고려 기병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적 기병에 대해서는 즉시 타격하여 섬멸하였던 것이다.

태조 8년(925) 10월에 왕건은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유금필(庾黔弼)을 보내어 후백제의 연산진(燕山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을 쳐서 장군(將軍) 길환(吉奩)을 죽였다.⁶⁰⁾ 연산진·연산군·일모산성은

58) 이 글에서는 마군·정기·경기처럼 주요 역할 내지는 임무를 부여 받지 않은 기병을 일반기병으로 이름하였다. 예를 들면, 수레를 끄는 기병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59)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5년 2월.

60)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을유 8년 10월.

같은 곳이었다. 이 연산진에서 유금필이 장군 길환을 죽였다고 했는데, 태조 11년(928) 정월에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편지글에 “연산군 경계에서 길환을 군전(軍前)에서 참(斬)하였다”라는 내용⁶¹⁾이 보인다. 이는 연산진, 즉 일모산성의 성주로 생각되는 장군 길환을 진영 앞에서 목 베었다고 읽혀진다. 따라서 유금필은 일모산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하고 성 밖에서 길환을 죽이는 성과만 올렸던 것이다. 이것이 제1차 일모산성전투(연산진전투)였다.⁶²⁾

이때 유금필은 많은 수의 기병을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는 이 전투가 끝나고 바로 같은 달에 임존군(충남 예산)을 공격하여 3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또한 그는 역시 같은 달에 조물군(경북)에서도 활약을 하였다.⁶³⁾ 10월 한 달 동안에 세 군데서 전투를 치른 그 빠른 기동력과 임존군에서의 전과로 보아 유금필은 많은 수의 기병을 인솔했다고 판단된다.⁶⁴⁾ 같은 달에 충북과 충남 그리고 경북지역까지 3군데의 전장을 오가며 큰 활약을 한 유금필의 휘하 군사는 기병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전과를 올리는 것이 가능했으리라 여겨진다. 만약 보병이었다면 이러한 속전속결은 불가능하였다. 유금필이 원래 마군장군이었던 것도⁶⁵⁾ 이러한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고려군은 기병을 통한 빠른 기동력으로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고려군 기병에게 장애요인은 없었을까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공산동수전투(대구)와 제2차 운주전투(충남 홍성)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⁶⁶⁾ 927년(태조 10) 9월에 후백제왕 견훤은 신라 도성인

61)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무자 11년 정월.

62) 일모산성전투는 1차부터 3차까지 총 3차례 발발하였다. 일모산성전투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참고.

63)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을유 8년 10월.

64)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2012, 77~78쪽.

65)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금성(경북 경주)을 기습 공격하였다. 신라 경애왕은 사망하고 금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왕건은 직접 정기(精騎) 5천 명을 거느리고 공산 동수(대구 팔공산)에서 견훤과 크게 전투를 벌였으나 결과는 고려군의 참패였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명장 신승겸과 김락까지 전사하였으니 처참한 패배였던 것이다. 이것이 공산동수전투였다.⁶⁷⁾

공산동수전투는 신라 구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급히 달려온 왕건의 대표적인 실패 전투였다. 아무리 정예 기병인 정기 5천 명이라 할지라도 급하게 달려온 상태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후백제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또한 팔공산은 여러 산자락을 가지고 있는 큰 범위의 산지이다. 따라서 이곳은 기병만 가지고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산자락에서의 기병은 그 본연의 위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점을 왕건은 깊이 유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술 실패라 하겠다.

다음은 제2차 운주전투에서 기병의 장애요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아) (934년 가을 9월)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운주를 정벌하려 하니, 견훤이 이 소식을 듣고 갑사(甲士) 5천 명을 선발하여 (운주에) 이르러 말하기를, “양편의 군사가 서로 싸우면 형세를 보전하지 못하겠소. 무지한 병졸이 살상을 많이 당할까 염려되니 마땅히 화친을 맺어 각기 국경을 보전합시다” 하였다. 왕이 여러 장수를 모아 의논하니 우장군(右將軍) 유금필(庾黔弼)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형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원컨대 임금께서는 신들이 적을 쳐부수는 것만 보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였다. 저 편에서 진(陣)을 치기 전에 군세고 날랜 기병(경기勁騎) 수천 명으로 돌격하여 3천여 명을 목베거나 사로잡고, 술사(術士) 종훈(宗訓)과 의사(醫師) 훈겸(訓謙)과 용명한 장수 상달(尙達)·최필(崔弼)을 사로잡으니, 웅진(熊津) 이북의 30여 성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항복하였다.⁶⁸⁾

66) 운주전투는 1차와 2차 총 2차례 발발하였다. 운주전투에 대해서는,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2015 참고.

67) 『고려사』 권1, 세기1, 태조1, 10년 9월.

이상의 내용은 제2차 운주전투의 실전상황이었다. 왕건은 934년(태조 17) 9월 제2차 운주전투에 직접 참여하였다. 고려군은 왕이 참여하는 정벌이면서 충남지역의 중요 접경지역인 운주(충남 홍성)를 취하기 위한 작전이었기에 최정예부대였다. 굳세고 날랜 기병인 경기(勁騎) 수천 명이 포함된 병력이었다. 운주전투 시 고려군은 유금필을 우장군(右將軍)이라고 했으니 좌강·우강·중군의 3군 체제였다고 이해된다. 경기가 수천 명이었으므로 운주에 온 고려군 총 숫자는 최소 5천 명 이상이 아닐까한다.

그러나 견훤이 직접 이끌고 있는 후백제군도 막강하였다. 비록 견훤이 먼저 화친을 제의했지만 왕건도 여러 장수들과 회의를 하면서 근심하는 모양새였다. 사료 아)에 나타나는 후백제의 갑사(甲士) 5천 명은 갑졸(甲卒)·갑병(甲兵) 5천 명과 같은 의미였다. 갑졸(갑사)은 갑옷을 입은 사졸(士卒), 곧 보병을 지칭하였다.⁶⁹⁾ 이와 관련하여 5년 전에 의성부에서 중요한 전투가 있었다. 견훤이 929년(태조 12) 7월에 의성부를 공격하여 그 성주·장군 홍술(洪術)을 전사시켰는데 이때 동원된 후백제군이 갑졸 5천 명이었다.⁷⁰⁾ 이는 후백제군 갑졸 5천 명이 정예부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홍술은 923년 11월에 갑옷(개鎧) 30벌을 왕건에게 헌상하였다.⁷¹⁾ 따라서 홍술도 나름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런데도 후백제 갑졸부대에 목숨을 빼앗겼던 것이다. 그만큼 후백제군 갑졸의 전력이 뛰어났었다.

68)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7년 추9월, “王自將征運州 甄萱聞之 簡甲士五千至曰 兩軍相鬪 勢不俱全 恐無知之卒 多被殺傷 宜結和親 各保封境 王會諸將議之 右將軍庾黔弼曰 今日之勢 不容不戰 願王 觀臣等破敵 勿憂也 及彼未陣 以勁騎數千 突擊之 斬獲三千餘級 擒術士宗訓 醫師訓謙 勇將尙達 崔弼 熊津以北三十餘城 聞風自降”.

69) 갑졸에 대해서는, 『淮南子』의 내용을 인용 소개한 장동익, 『고려사세가초기편보유』 1, 경인문화사, 2014, 253쪽 참고.

7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2년 7월.

7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6년 11월.

의성부전투 당시의 갑졸이나 운주전투 시 갑사나 단어의 뜻이 같고 병사의 숫자도 같으므로 이들은 동일한 전투부대였다. 그리고 운주전투의 후백제군은 심리전에 관여했을 술사와 군의관인 의사를 대동했으며, 그 주요 지휘관 중에는 용장(勇將)이라 일컫는 상달과 최필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대가 견훤의 최정예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갑사(갑졸, 갑병)는 보병인데 고려군의 경기와 맞먹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병은 기병 그것도 정예기병인 경기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왕건은 후백제의 ‘갑사부대(甲士部隊)’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 갑사부대는 경기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찍이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하기 전에 신라군으로 종군하며 자면서도 창을 베고(침과枕戈) 적을 대비했다고 한다.⁷²⁾ 또한 신라는 긴 창을 다루는 부대인 비금서당(緋衿誓幢, 장창당長槍幢)을 보유하고 있었다.⁷³⁾ 아마도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후에 신라의 장창부대를 자기화했다고 여겨진다. 그는 갑옷으로 무장한 보병 중에서 장창(長槍)을 소지한 인원을 일정 정도 포함시켜 적 기병을 무력화하는 전술에 능하지 않았나싶다.

긴 창을 질러대는 후백제 갑사부대를 향해 고려군 경기의 말들이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다. 따라서 경기 수천 명을 대동한 왕건이 머뭇거리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해된다. 후백제도 비록 갑옷으로 무장하고 장창을 소지했지만 고려군의 경기가 너무 많고 강해보여서 머뭇거렸던 것이다. 양측이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군은 유급필의 주도아래 후백제의 갑사부대가 진(陣)을 치기 전에 먼저 타격을 가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보병인 후백제 갑사부대는 진을 치기 전에 고려군의 타격을 받으면 그 진용이 흐트러졌을 것이고, 그런 후에 연이은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이었다. 만약 후백

72)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73)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무관, 구서당. 신라의 장창당에 대해서는, 서영교, 「新羅 長槍幢에 대한 新考察」, 『慶州史學』 17, 경주사학회, 1998 참고.

제군이 진을 먼저 갖추었다면 결과는 예측불허였을 것이다. 후백제군이 진을 갖추고 장창으로 막아섰다면 유금필의 경기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런 전투가 가능하려면 유금필과 그 경기(勁騎)는 엄청난 속도로 내달려야 했으며, 지형조건은 평지여야 했다. 따라서 운주성 일대의 평지에서 양측이 격돌했는데⁷⁴⁾ 선제공격을 감행한 고려군의 경기가 승리했다고 전투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⁷⁵⁾ 고려군 기병의 장애요인은 후백제 장창부대였지만, 고려군 기병은 선제 타격으로 이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었다. 제2차 운주전투에서 패배한 견훤은 재기불능에 빠지고 말았다. 후백제는 이 전투의 실패 이후로 2년 만에 국가의 문을 닫고 말았기 때문이다.⁷⁶⁾

한편, 기병은 아니지만 기병의 작전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관리하는 관리가 있었다. 바로 역리(驛吏)가 그러한 존재였다. 운주전투 현장 인근에 있었던 몽웅역(夢熊驛)⁷⁷⁾의 역리 한씨(韓氏)가 이에 해당된다. 충남 서산과 태안 쪽에서 고려 통일전쟁기에 가장 주목받은 곳은 정해현(貞海縣, 충남 서산시 해미면)이었다. (정해현은) “세간에 전하기를 태조 때에 몽웅역의 역리였던 한씨 성을 가진 자가 큰 공로가 있어 대광(大匡)의 호를 내리고, 고구현(高丘縣)의 땅을 나누어 이 현을 설치하여 그의 관향으로 삼게 하였다”⁷⁸⁾고 한다. 한씨에게 수여된 대광이라는 관계는 당시 지역민에게 주어진 것으로서는 최고의 대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몽웅역 인근에서 벌어진 운주전투에

74) 운주성은 현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주읍성의 모태인데(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2015, 183~184쪽), 그 일대에 기병진을 펼칠 수 있는 평지가 있다(2015년 6월 29일 답사).

75) 제2차 운주전투의 고려군 기병 활약상에 대해서는, 김명진, 위의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2015, 199~201쪽 인용.

76)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29쪽.

77) 현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 『한국지명총람』 4(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85쪽.

78)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홍주 정해현.

서 한씨가 고려군에 큰 도움을 주었기에 대광 관계를 수여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⁷⁹⁾ 역리인 한씨가 역마(驛馬)를 이용하여 운주전투에서 고려군에게 무언가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군령(軍令) 전달과 군수(軍需) 보급은 물론이고, 적에 대한 정탐·진군로에 대한 안내·기병들의 말먹이 보충 등이 한씨가 했을 공로가 아닐까한다.

무엇보다도 고려 기병의 실전상황이 잘 나타난 전투는 통일전쟁의 마지막전투인 936년 9월에 발발한 일리천전투(경북 구미)였다. 이 전투는 고려 통일전쟁기에 가장 많은 수의 군사와 군마가 동원된 총력전이었다. 그 시기는 군량미 조달을 위해서 음력 9월이었다. 이때가 군량미 확보와 군사 동원을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⁸⁰⁾ 뿐만 아니라 말먹이를 위해서도 그러하였다. 왕건은 이 전투의 준비 작업을 위해서 선발대를 3개월 전에 보냈다. 936년 6월에 천안부로 보기(步騎) 1만을 먼저 보낸 것은 바로 그 사전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 준비작업의 책임자는 다음 왕위 계승자인 정윤(正胤) 무(武, 혜종)와 박술희였다.⁸¹⁾

일리천전투의 실전상황이 잘 기술되어 있는 앞장에서 제시한 사료(사)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표 1>에 의하면, 3군에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이 적절히 섞여있었다. 특히 좌강과 우강은 각각 마군 1만과 보군 1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말 탄 병사 1명과 보병 1명의 1대1 구성이었다. 여기에 어떠한 전술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함을 내포하고 있다. 앞서 927년에 산지로 구성되어 있었던 공산동수의 전투에서 기병만 가지고 전투에 임한 왕건이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934년 운주전투에서 고려 기병은 후백제 갑사부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뻔하였다. 따라서 왕건은 고려군 기병에 대한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을

79)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6~27쪽.

80)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2014, 192쪽.

8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6월.

찾고자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마군과 보군이 같이 움직이는 전술을 생각해낸 것이다.⁸²⁾

고려 마군이 빠르게 전진할 때에 보군 병사는 마군 병사의 말위에 얹혀 타고 갈 수 있다. 한 필의 말에 두 명이 이동하는 것이다. 반대로 마군이 후백제군 또는 지형적 요건으로 인하여 장애를 받아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말에서 내린 보군 병사가 장애 요인을 해결해 준다. 적이 장창(長槍)을 소지한 갑사부대라면 보군이 같이 응대해 줄 수 있다. 그런가하면 지형적으로 군마가 전진함에 장애요인이 있다면 이 역시 보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마군이 서행할 적에는 보군이 뛰면서 칼과 창을 이용하여 마군이 할 수 없는 상황의 적을 타격할 수도 있다. 왕건은 이러한 전술을 위해 일리천전투의 좌강과 우강은 1(마군)대1(보군) 구성을 했다고 추정된다. 이 같은 1(마군)대1(보군) 전술은 선발대 보기(步騎) 1만을 보낸 천안부에서 이미 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군은 1대1 구성에 못 미치는데 이는 제변경기라는 특이한 군사 때문이었다. 여기에 원병의 존재가 어우러진 이유가 있었다.

마군과 함께한 보군 지휘관의 명칭이 이러한 추정의 사실성에 힘을 실어준다. 이들 지휘관인 대장군에게는 마군 못지않다는 의미에서 하늘의 군대인 천군(天軍)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⁸³⁾ 천군은 신성성과 자부심, 그리고 하늘의 명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⁸⁴⁾ 천군이라는 자부심은 보군 병사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각 천군 대장군과 그 휘하 보군에게는 특정 임무가 주어졌다. 좌강 지천군 대장군(支天軍 大將軍)의 지천군과 우강 보천군 대장군(補天軍

82) 기병과 보병이 섞인 효과적인 전술에 대한 이해는, 서영교, 「新羅 騎兵隊 五州摺 附屬 步兵」, 『경주문화연구』 6, 2003 참고.

83) 한정수, 「高麗 太祖代 八關會 設行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8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218쪽 참고.

84) 정경현, 「경군」,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2003, 278~279쪽 참고.

大將軍)의 보천군은 각각 마군을 지원(支援)하고 보좌(補佐)한다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역할이 같은 것이다. 중군의 우천군 대장군(祐天軍 大將軍)의 우천군도 돕는다(祐)는 의미이니 지천군·보천군과 같은 역할이었다.

그런데 중군의 천무군 대장군(天武軍 大將軍)의 천무군과 간천군 대장군(杆天軍 大將軍)의 간천군은 임무가 달랐다. 천무군은 용맹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무(武)라는 자의(字意)로 보아 보병 돌격부대였을 것이다. 간천군은 방패(간杆)를 가지고 있는 방어에 능한 부대였다고 여겨진다. 대체로 마군의 지휘관보다 보군의 지휘관 관계가 낮았기에 이처럼 보군의 역할이 주로 마군을 보좌했다고 이해된다. 이는 무리한 추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휘관의 관계는 앞장의 <표 1>에 나열하였다.

사료 사)와 『삼국사기』 견훤전에 의하면,⁸⁵⁾ 대장군 공훤이 원병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후백제군을 찌르듯이 강타했다(직도直擣)고 한다. 물론 공훤이 맨 앞에 이끌고 간 것은 원병의 기병 3백이었을 것이다. 이는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적을 초기에 무력화 시키는 기병전술의 모범이라 하겠다. 그런 다음 바로 이어서 제번경기가 포함된 중군이 연타하고 좌우강이 협공하는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때 좌우강의 보군은 마군을 적극 보좌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기병 전술로서 고려군이 승리를 쟁취했다고 전체 전투 장면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왕건이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제번경기 9,500명을 선봉에 세우지 않고 원병 기병 3백 명을 선봉으로 세운 이유가 궁금하다. 아마도 전투가 끝난 뒤에 발생할 이 전투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생각했을 것이다. 외부세력인 제번경기가 일등 공적을 갖는다는 것은 왕건에게 부담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고려군의 자주성 문제가

85)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천복 원년 추9월.

있었다. 고려의 통일전쟁에 고려군이 솔선수범해야 이 전쟁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기병 전술에서 장애요인은 공산동수전투에서 경험했던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장애와 운주전투에서 경험했던 후백제의 장창을 소지한 감사부대였다. 하지만 고려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리천전투에서 1(마군)대1(보군) 협조체제와 기병 300명의 선공술(先攻術)을 이용하여 성공하였다. 요컨대 통일전쟁기의 마지막전투인 936년 일리천전투에서의 고려군 승인의 중요한 동력은 효과적인 기병운영이었다. 결과는 왕건이 이끈 고려군의 대승이었다.

5. 맺음글

통일고려(統一高麗)를 완성한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에게 효과적인 기병 운영은 통일전쟁 승인의 큰 자산이 되었다. 이에 대한 본 연구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고려군의 군마(軍馬) 수급 방법은 세 유형이 있었다. 자체조달〔민가에서 조달, 내구(內廩)와 외구(外廩)에서 사육, 역(驛)·진(鎭)에서 조달, 말 목장 경영〕, 전쟁노획물, 외부로부터 평화적으로 들어오는 방법〔발해인과 제번(諸蕃) 등의 귀부로 인한 유입, 선물, 수입, 차용〕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고려군 군마의 총수는 외래 병사인 제번경기(諸蕃勁騎)의 말을 제외하고, 5만 필 이내로 추정하였다. 태조대에 고려군 군마의 전체적인 관리는 비룡성(飛龍省) 또는 태복시(太僕寺)와 군사기구인 순군부·병부, 그리고 각 군(軍) 등에서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리적으로 말 유입에 편리한 북방지역을 접경지역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려는 기병을 키우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후백제는 말의 외부 유입이 어려웠으므로 기병 육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후백제가 929년 무렵부터 보병 정예부대인 갑사부대(甲士部隊)를 중시 한 것도 바로 말 수급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한다. 통일전쟁의 막바지에 양국의 주력부대가 말 수급 상황 때문에 그 성격이 달랐던 것이다.

둘째, 고려군 기병의 종류는 마군(馬軍)·정기(精騎)·경기(勁騎)·일반기병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간의 엄격한 구별은 없었다. 각 전투에 따라서 마군 또는 일반기병 등으로 그 역할을 맡겼던 것이다.

셋째, 고려군 기병의 실전 대처 능력은 이렇다. 먼저 고려군 기병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적 기병에 대해서는 즉시 타격 섬멸하였다(예, 921년 등주전투). 그리고 막강한 전력을 가진 적에게는 선제 타격을 가해 승리하였다(예, 934년 제2차 운주전투). 고려군 기병의 장애요인은 두 가지가 있었다. 지형적으로는 산악지대였고, 실전에서는 후백제의 장창(長槍)을 소지한 갑사부대(甲士部隊)였다. 따라서 왕건은 936년 9월에 후백제를 상대로 한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전투인 일리천전투에서 이를 극복한 전술을 사용하였다. 왕건은 고려군의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을 1대1로 구성한 후에, 말을 탄 마군과 보병인 보군이 협력하여 기병의 장애요인을 극복하였다. 당시 원병 3백 명의 기병은 선제 타격용이었다. 결과는 왕건이 이끈 고려군의 대승이었다.

[원고투고일: 2016.5.30, 심사수정일: 2016.11.15,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왕건, 견훤, 통일전쟁, 군마(軍馬)의 수급, 기병(騎兵)의 실상, 기병(騎兵)의 실전상황, 장창(長槍), 갑사부대(甲士部隊)

<ABSTRACT>

The study of cavalry troop operating by Wang Geon, the Founder of Goryeo Dynasty

Kim, Myeong-Jin

Through the effective employment of the cavalry units, Taejo(the founder of the country) Wangeon was able to complete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became the ultimate winner. The Research explored herein boils down to three key areas:

First, the Goryeo dynasty secured horses with three procurement methods: purveying horses for themselves, looting horses in a battle, and bringing in horses from outside in a peaceful manner.

Second, the Goryeo cavalry forces included mechanized horsemen, ordinary horsemen, strong and swift horsemen, horsemen only carrying simple individual weapons, and crack horsemen.

Third, when it came to the readiness of the Goryeo cavalry units to engage in combat, they promptly dealt with the killing blow to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enemy cavalry, thus annihilating them. In addition, the Goryeo cavalry launched preemptive attacks against any enemies with formidable military capability, thereby defeating them.

The Goryeo cavalry forces, though, faced two major obstacles. One was the mountainous terrain; the other was the battle against with the Hubaekje's units armed with lance, long spear Accordingly, Wang Geon employed a tactic that allowed his army to overcome those obstacles in the Battle of Illicheon in September 936, the final battle that Goryeo engaged in on the road toward unification and that led to Wang Geon's great victory over Hubaekje.

Key words : Wang Geon, Gyeon Hwon, Unification War, Military Horse Procurement, Reality of the Cavalry, Cavalry Involved with Actual Combat Situations, Lances, Armored Units.

